

2016 여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솔로몬지역아동센터



2016. 7

솔로몬지역아동센터 마*은

작년 2학기에 동아리 활동에, 20학점이 넘는 빡빡한 시간표로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과 통학에 지쳐갈 때 가장 힘이 되어 준 것은 바로 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즐거운 추억과 주변 친구들의 추천으로 이화봉사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리 생각 해 보면서 툭툭떨어진 눈으로 우리를 예쁘게 쳐다봐주는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칭찬이 오가는 화목한 분위기를 상상하며 센터에 도착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점점 느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3명에서 25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 번에 집중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한 쪽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바로 다른 쪽에서 다른 문제가 일어나 혼란의 상태가 계속되어 안전 문제가 많이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질서를 천천히 잡아가면서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안전하게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바로 센터 측에서 진행하는 축구교실이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인근 어린이 공원 풋살 경기장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수업을 아이들과 함께 들으며 아이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화봉사단에서 준비한 미니운동회에서도 달리기 등 활동적인 게임이 많았지만 실내에서 진행한 활동이다 보니 공간의 제약이 커서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지는 못한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진행된 축구교실은 넓고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즐길 수 있어서 아이들도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야외에 나오면 공간이 넓어서 더 통제가 안 될 것 같았지만 즐겁게 노는 와중에도 아이들이 '축구'라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 질서를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여러 차례 진행된 팀 대항 게임에서도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긴 팀을 축하해주는 법도 잘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 하지 못하고 체력도 정말 좋지 않아서 몇 분만 뛰어도 쉽게 지치곤 했습니다. 힘들어서 자리에 앉고 싶을 때마다 오히려 아이들이 "선생님, 힘내세요!"와 같은 응원을 해 주어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축구를 하던 시간은 아침이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씨 때문에 아이들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얼굴이 모두 빨갛게 익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시원한 시간을 주고 재미있게 놀기 위해 물총을 모두 하나씩 나눠주고 공원에서 물총 쏘기 게임도 하며 운동 후 시원하게 놀 수 있었습니다.

센터 상황이나 아이들이 중간에 학원에 가는 등 여러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표와는 약간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고 사전 준비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약간 허무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주는 에너지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뿐만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모여 앉아 함께 놀 때 아이들은 저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장난도 치며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침에 아이들이 오기 전 센터를 청소하는 시간과 아이들의 식사를 배부하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단지 멘토링 선생님이 아니라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센터의 일원이 되어 다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4박 5일의 시간동안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외우면서 많이 정들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준 아이들과 센터에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정*현

6월 기말고사 기간에 나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다. 그날은 이화 봉사단 국내봉사 신청 마감 날이었다. 평소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봉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대강당OT, 커리어박람회 이런 곳에서 이화봉사단이 나를 사로잡았고, 학기 초부터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봉사단 단원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4월에 해외봉사 모집에서 한 번 쓴맛을 경험한지라 국내봉사도 어렵겠지라는 생각에 고민만 하다가 마감이라는 말에 신청을 해버렸다. 감사하게도 학교에서는 기회를 줬고 그렇게 솔로몬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인연을 맺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수박화채 만들기, 나무필통 꾸미기, 모기퇴치제 만들기 세 개였다.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경험해보고 그 후에 실제로 남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기 위주로 선택을 했다. 재료들을 사고 집에서 미리 만들어 보는데 이런 것을 만들면서 즐거워 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미소가 지어졌다.

8월 8일 대망의 봉사활동이 시작하는 날이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밥을 먹다말고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던 아이들이 기억난다. 첫 활동으로는 아이들 이름도 외우고 아이들에 대해 알기 위해 명찰 꾸미기를 했다. 우리를 낯설어 하지 않고 말도 잘 듣는 것 같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남자애들 있는 테이블이 좀 시끄러웠다. 몇몇 애들 사이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특히 한 3학년 아이가 형들에게 계속 장난을 쳐서 일어난 일 같았다. 하지만 그 아이 옆으로 가서 잘 보니까 형들과 어울리고 싶고 형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지나친 장난으로 표현했고 형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싸움이였다. 우리 계획대로 다 되진 않고 순조롭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나에겐 처음부터 조금 당황스러웠다. 적당히 타이르고 형들한테는 좋게 설명하는 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 방법이 맞는 거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이 경험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의 특징이라든가 다루는 방법 등을 더 알아보고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느꼈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다. 내가 준비한 것 중에 많이 아쉬웠던 건 모기퇴치제 만들기였다. 여러 재료들을 계량해서 섞고 만들고 하는 것이었는데 손이 많이 가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많이 생각을 못해갔고 나조차도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있었다. 그래서 잘 못 만든 친구들도 있었고 만들 때도 전체적으로 어수선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 프로그램을 맡은 사람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던 것 같다.

기억나는 것이 정말 많지만 아이들과의 첫 만남, 가장 아쉬웠던 것 이렇게 두 개만 적어보았다. 이런 것 외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고 나니까 다음에 가게 된다면 뭘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감이 생겼다. 대체로 여자아이들은 꾸미고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남자아이들은 모든 게임을 다 좋아했다. 또한 남자여자 가리지 않고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걸 보니까 실내 프로그램도 좋지만 아이들과 뛰어노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센터의 자체프로그램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한 것은 서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활동이 끝나기 이틀 전 부터는 애들이 안가면 안돼요? 진짜 가요? 이런 말들을 했다. 내가 해준 것이라고는 같이 있어주고 놀아주고 한 것이 전부였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소중한 경험들을 만든 것 같아서 행복했다.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지*현

작년에 이화봉사단으로 베트남에 다녀왔다. 그때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는 국내 봉사를 신청했다. 이화봉사단은 프로그램 구상부터 물품준비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일정을 스스로 짜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준비하는 한 단계 한 단계가 매우 중요한 쉽지 않은 활동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매순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자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다.

이번 방학에는 일주일동안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솔로몬 지역아동 센터에서 봉사를 했다. 첫 만남은 항상 그렇듯,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조금은 어색했다. 그래도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아이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와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사실 이 솔로몬 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나이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수준을 정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히 참여해줘서 프로그램이 별탈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잘 진행된 덕분에 아이들과도 정말 많이 친해져서,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는 우리 팀원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자 친구, 그리고 언니와 누나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봉사를 하면서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여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마음이 맞는 좋은 팀원들을 만난 것이 이번 봉사를 더 기억에 남게 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봉사를 할 때 팀원들의 협동이 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팀원들끼리 뜻이 맞아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무리가 없고, 팀워크가 잘되는 팀일수록 아이들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력도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봉사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어떻게 보면, 세 명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책임이 더 크고,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해야 할 일도 많았다. 그런데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다면 작은 일부터 아이들을 통솔하는 일까지 누구하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솔선수범했다. 리더였던 지은 언니는 카리스마 있게 아이들을 통솔해 주었고, 소현이는 정말 차분하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잘 봐주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이 수월하게 계획대로 맞춰서 착착 끝났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따로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이화봉사단 팀원 언니, 동생과 연락을 하고 싶다.

이번 이화봉사단을 통해서 만난 착하고 예쁜 아이들, 친절하신 센터장님, 그리고 좋은 팀원들 덕분에 봉사를 하면서 학기 중에 지쳤던 마음이 힐링이 되었고, 매사에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중요성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순수한 아이들과의 소통에서 오는 큰 힘, 그리고 주는 만큼 그 이상으로 받는 사랑 등... 나누면서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학기 중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다시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 지역 아동 센터에서 봉사를 한 것은 내가 봉사 활동을 하려는 이유가 다시 한 번 확실해진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번 봉사에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지내려고 한다.